

공약사업 관리카드(2024. 3. 10. 기준)

관리번호	5-1	공 약 사업명	농촌고용인력 안정 수급 지원						
사업주체	창녕군, 민간 (농협중앙회, 창녕군지부)	완료시기	임기내	공약 이행도					
총사업비	3,177백만 원 (국 456, 도 326, 군 2,395)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농촌고용인력 안정 수급 지원 ○ 위치: 창녕군 전역 ○ 사업기간: 2022년~계속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1개소 -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450명(연간)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6명(연간) 								
연도별 소요예산 (백만 원)	구분	총액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3,177	284	357	634	634	634	634	
	국비	456	40	40	94	94	94	94	
	도비	326	33	45	62	62	62	62	
군비	2,395	211	272	478	478	478	478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현재 163명) ○ 2024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모사업 선정 및 운영예정 ○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환경 개선사업 실시(6개소) ○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실시(450명) 								
공약 이행률	100%	2024년 목표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영					
문제점 및 대책	<p>【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상반기 필리핀과 MOU체결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예정이었으나, 필리핀 당국에서 근로자 송출 및 MOU체결 잠정 중단 <p>【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형 계절근로자 MOU유형 대신 결혼이민자 가족초청으로 유형을 변경하여 근로자 선발 중 ○ 향후 필리핀 MOU체결 재개 시 MOU체결 검토 예정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220명): 2024. 2.~6. ○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영(6명) : 2024. 4.~7.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 2024. 3.~12. 								
주관부서 (팀명)	농식품유통과 (농촌특활팀)	부서장	김덕철 (☎7560)	팀장	백진원 (☎7582)	담당자	이남경 (☎7583)		

증빙서류

창녕군, 농촌 인력난 해소·인력 수급 '총력'

농촌인력 증개센터 운영...인력증개 확대 등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하반기 수요 조사 진행



창녕군 공무원들이 지난 20일 도천면 일리에서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하고 있다.

창녕군이 지난 21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농촌 일손돕기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마늘·양파 수확 1066명, 비닐하우스 작업 50명, 파종 등 45명 총 1161명

을 병행 영농 부족인력으로 파악하고, 공무원 520명, 유관기관 및 단체 등 435명을 일손돕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인력증개센터를 통한 인력 증개 확대, 일손돕기 상황실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등을 추진 중이다.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농협중앙회 창

녕군지부와 협약을 맺어 농촌인력 증개센터를 운영 중이며, 농촌인력 알선과 교통비 지급, 상해보험 가입, 농작업 교육 등 영농 고충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 일손돕기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공무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해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라오스 까시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58명을 농가에 배치하는 등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반기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절차가 완료되는 10월 참여 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은 농장주들은 "매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인다. 인건비 상승을 억제해 소득도 안정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농촌인력 확보가 곧 농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덕수기자

창녕군, 2024년 상반기 '라오스·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150명' 입국

(박재영)



경남 창녕군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 18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가에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재작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 23년 라오스·캄보디아에서 240여 명의 근로자를 농가에 투입해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작년 라오스에서 입국해 체류 중인 근로자 58명이 현재 창녕군에서 근로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2월, 150명의 라오스·캄보디아 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오는 4월 37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입국할 계획이다.

입국한 근로자들은 범죄예방과 이발 방지, 근로 기준에 대한 교육, 마약 검사 등을 마치고 농가에 배정되어 근로를 시작하게 된다.

창녕군은 작년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원활하게 계절근로자를 도입, 농가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입국가를 확대하여 농가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군은 채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약 검사비와 외국인등록, 의료 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쾌적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창녕군에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적시 근로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며, 앞으로도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자료

언론 보도자료